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17, 2016 Vol. 554

교계지도자들 '美國' 위해 기도하자



한기홍 목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이번 美 선거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국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밝혔다.

10일 은혜한인교회에서는 10월 23일 열렸던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평가하기 위한 주최측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 목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민족기도대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결집한 보수층은 후보 개인이나 그 도덕성보다는 성경적,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정당에 투표했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평했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동성결혼 같은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 목사는 "미국을 위한 기도회에 한인들이 주도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참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주류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한 침례교 지도자인 미국 남침례신학대학교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총장과 미국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를 이끄는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이 미국 기독교계를 향해 이같이 요청했다.

우선 몰러 총장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모든 미국인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인들은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됐다. 미국 유권자들 안에 울분의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별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트럼프의 성격적 결함을 보지 못할 만큼 변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러셀 무어 위원장은 디모데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며 "성경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영광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누가 당선되든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지혜와 정의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정치가 종교가 되고, 종교가 정치가 되는 것에 맞서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가 공화주의자나 민주주의자,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을 멋지게 이끌길 바란다'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버트 몰러 총장



러셀 무어 위원장

하비스트교회 그렉 로리 목사는 "선거로 인해 미국이 나뉘었다. 이제는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라며 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 하루가 지난 9일 그렉 로리 목사는 "대선은 끝났다. 이제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그가 정국을 잘 이끌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는 미국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미국의 힘은 항상 영적인 뿌리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렉 로리 목사.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 섬겨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 명절 중 하나이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전통이었던 추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영국 성공회교도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162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789년 11월 26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1863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 연방 정부에 의해 법적인 공휴일로 공표된 때는 1898년이라고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미국 정착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강한 면도 있다.

초기 정착민들은 정착기술이 전무하고 개념도 없었다. 단적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있었던 100여 명 중에서 농업이나 어업 등의 생산직 종사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추운 겨울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들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만약 당시 원주민들(백인에게 우호적인 왐파노악족)이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 농사기법 등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종교자유'를 찾아 사선을 뚫고 도착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종교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생존 자체도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왐파노악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곡식을 파종하여 여름에 대풍작을 거두게 된다. 이에 크게 감사한 청교도들은 1621년 12월 13일에 이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다시 돌아온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 당시 왐파노악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에게 베풀었던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가 베풀 차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영인 기자

美복음주의 기독교인 81% 트럼프를 찍은 이유

미국 내 복음주의(Evangelical) 기독교인 81%가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신문들은 대선출구조사를 근거로 복음주의 기독교인 81%가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다. 이번에 81%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찍은 것은 지난 2004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얻었던 78%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와 성경묵상 등 경건생활을 중시하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을 일컫는다.

그런 이들에게 트럼프는 3번 결혼하고 카지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번 대선에서 공개된 성추행 언급 비디오 등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아 선거 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되었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각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정기총회가 13일 마가교회에서 열려 제9대 회장으로 약손한의원 원장인 정종오 한의사(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다섯번 째)를 선출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정기총회 개최…신임회장 정종오 한의사 선출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가 13일 오후 마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신임회장으로 정종오 약손한의원 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김사론 총무의 인도로 진행된 2부 정기총회 사업보고 및 회장 선출에서는 투표결과 제적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정종오 신임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미주기독한의사협회를 섬기게 된다.

정종오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회장으로 선출됨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해 보고 싶은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부 찬양과 예배 순서에서는 아프칸에서 사역하던 Wiley 선교사가 간증을 통해 아프칸 현지의 생생한 선교소식을 전했다.

*문의: 정종오 회장
213-500-6393

이영인 기자



글로벌선교연구원 원장 김만태 박사가 아시아 H국에서 강의하던 모습.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글로벌선교연구원 특강

글로벌선교연구원(GCMI) 원장 김만태 박사가 13일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2시간 동안 선교 특강을 열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약 60명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박사는 성경으로 본 선교, 선교의 역사적 전개, 현 시대의 선교 과업,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 방법 등 4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김 박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사명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사명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20세기 선교를 주도한 미국 선교의 뿌리와 전개 과정을 소개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적 열망으로 이어지고 대학 청년들의 기도 운동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 현재의 선교 과업으로서 가장 미복음화 상태에 있는 불교, 힌두, 회교권 사역의 필요성과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한인교회가 어떻게 해외선교를 위해 조직하고 기도하며 선교현장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은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욱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선교연구원은 한인교회의 실제적인 선교 참여 증진, 현장 한국선교사들을 위한 워샵을 통한 선교 전략 제공, 선교 현지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 교육을 하고 있다. 또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한인교회들에 선교의 성경적 기초, 실제적인 선교 참여의 형태와 방법을 소개한다.

원장 김 박사는 스리랑카 선교사로 사역했고 풀러신학교 현대문화와 리더십 분야 객원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Ph.D. 학위를 받았으며 선교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2010), 타문화사역과 리더십(2011), 데이빗 보쉬의 명저 변화하는 선교(2017년 1월 출간 예정) 등 선교에 관한 번역서들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문의: 213-531-7215
*웹사이트:
www.gcmiworld.weebly.com

김준형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멕시칼리에서 개설된 멕시코 현지인 열린 아버지학교 1기가 15일 열렸다.

"아버지학교 통한 멕시코 복음화"

멕시코 현지인 대상…제1기열린아버지학교 개설

멕시코 멕시칼리에 위치한 비트로 엔바세스 멕시칼리(Vitro Envases Mexicali) 회사에서 10월 14일부터 현지인 대상으로 열린 아버지학교 수료식이 15일 진행됐다.

이 회사는 1909년에 설립된 병제조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으로 미국, 캐나다, 중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 지사망을 둔 다국적 기업이다.

이 회사의 멕시칼리 공장에 근무하는 370명의 직원 중에 아버지인 122명이 이번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5일에 아내들과 함께 수료식을 하게된 것이다.

열린 아버지학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아버지들끼리 종교에 관계없이 회사 근무 시간을 이용하고 회사가 프로그램의 비용을 종업원 복지 후생으로 간주하여 제공하여 개설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도 역시 일반 아버지학교처럼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모든 진행 순서와 내용은 같으나 단지 종교적 색채가 짙은 용어를 일반 용어로 바꾸어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형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체성과 영향력 등을 설명하고 나누려면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게 되므로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전도와 선교'라 할 수 있다.

이번 멕시칼리 열린 아버지학교를 위해서는 Gillerzmo형제와 조윤호 목사의 헌신이 남달랐다.

열린 아버지학교를 세계적 기업인 Vitro회사 멕시칼리 지사에 4개월간 끈질게 지부장에게 근로자 대다수가 남자인 것을 감안하여 근로복지 차원으로 설득하여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그리고 멕시칼리에서 이미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20명의 형제들이 친구와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간부들을 설득하고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122명의 아버지들이 참가하게 된 것이다.

원래 열린 아버지학교의 재정은 100% 개설 회사가 부담하여야하는데 멕시코의 특수 사정상 이번 수료식에 아버지학교 고유의 줄무늬 T-Shirts는 미주 본부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미주본부에서는 그동안 각 후원처에서 후원한 재정 중 일부를 미개척 지역이나 프로그램을 런칭할 때 사용하기 위해 틈틈히 저축해 두었는데, 이번에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수료하는 107명의 수료생 아버지들에게 무료로 T-Shirts를 지원했다.(어바인온누리교회 특별헌금 포함)

멕시칼리에서의 열린 아버지학교와 동시에 티후아나에서는 12일~20일까지 현지인 교회에서 35명의 현지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한편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에서는 오는 2017년부터 미국내에 거주하는 스패니쉬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 개설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멕시코의 현지인 대상 열린 아버지학교 개설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7년 4월경에는 티후아나의 6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미 개설 약속을 받아 재정과 봉사자들을 모으고 훈련하고 있다.

멕시코 사정상 성인 남자 선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학교를 통한 복음 전파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2-5454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제공]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GMU추수감사 초청의 밤 (Open Hous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

초청의 밤 (Open House)
일시 : 11월 22일(화) 7:00pm
장소 : GMU 예배실(은혜한인교회 Miracle center)
행사내용:
– 학교탐방 (Camus tour)
– 학위인가 및 과정 소개
–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 학생 비자 소개
–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 학업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특별상품 추첨
✔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

선교학 박사 과정 (D.Miss, 유학생 I-20 발급)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집중 강의
과목1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상황화 연구 (12/5~1/3, 매주 월요일 5주)
과목2 : 다문화영성 (2017년 1/9~13, 월~금)
과목3 : 가정은 선교지 (2017년 1/16~20, 월~금)

■ 2017 봄학기 신입생 접수 시작
■ 2017 봄 학기 수업 시작 : 2017년 1월 30일

학위과정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 (BA)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English Track • LA 연장클라스에서 수업가능 •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연장클라스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교도소 선교를 후원 하기 위한 제9회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가 11월 13일(주일) 오후 6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많은 교계 인사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열렸다.

교도소 선교 후원 위한 … 제9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성황리에 개최

제9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가 13일 오후 6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이 찬양단 총무 백선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연주회는 단장 박재웅 목사 인사말, 수석부단당 김인철 목사 개회기도에 이어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이데이빗 목사)의 사랑의 열매, 십자가 군병, 깨어라 먼동이 튼다 등의 합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주회가 시작됐다.

KAMA Boys&Girls Choir(지휘 류지원), 죠이플남성선교중창단(지휘 서문욱 목사), 기독여성합창단(지휘 조한우), 소프라노 줄리 안 등이 특별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연주회를 연출했다.

이날 직전 단장이었던 정윤두 목사에게는 찬양단을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뜻으로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또한 선정된 교도소 선교단체에게는 후원금을 전달했다.

연주회의 모든 순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합창한 후 고문 이상기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은혜롭게 마쳤다.

한편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찬양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간에 서로 위로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조직된 찬양단으로 모든 지역 목회자나 장로부부에게 항상 열려있다.

*문의: 213-550-8778

이영인 기자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는 9일 남가주샬롬교회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11월 월례회 열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이황영 목사)가 9일(수) 남가주샬롬교회(김준식 목사)에서 정기 월례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담임)의 기도 후, 이황영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신 17:14~20절)'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만, 우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며 "임기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미국을 위해, 차세대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김준식 목사(남가주 살롬교회 담임)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가 미주세한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

미주성결 남가주 교역자회 연합예배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충기 목사)는 지난 11월 14일 치노힐스에 있는 미주세한교회(담임 주신 목사)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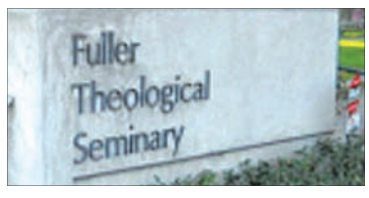
부회장인 김회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교역자회는 고남철 목사(그레이스성결교회 담임)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주제 설교를 전했다.

그리고 치노밸리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인 제임스 나(James Na)가 특별강사로 초청되어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그후 남가주에 3개 지방회에 소속된 교역자들이 고남철 목사가 제공한 점심 식사를 나누었다.

"정치적 복음주의, 정체성과 진실성 회복해야"

플러신학교…美대선 후 성명 통해 입장 밝혀



풀러신학교의 마크 래버튼 총장과 리차드 마우 명예총장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복음주의가 선거 캠페인과 연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강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 내내, 언론은 백인 기독교인들 위주의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를 복음주의자라고 언급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낙태와 대법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여성, 유색인종, 무슬림,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려보다 이것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양극화가 복음주의자들 안에도 있었고,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과 모순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러한 연합이 언론이 아닌 복음주의자들 내부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도 했다. 선거 이후에 실시된 조사에서 드러난, 복음주의자들이 투표에 미친 영향력은 이러한 관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가운데 일부는 만연하고 파괴적인 정치적 연합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둘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정체성과 진실성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래버튼 총장과 마우 명예총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또한 인종차별과 공포를 정죄하고 슬퍼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난 거절과 증오를 거부한다. 이러한 실상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안의 슬픔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풀러는 복음주의적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고 드러내려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강혜진 기자







뉴욕교협 '지역 자치회' 도입 등 개혁단행

페이퍼교회 청산
선거제도 개선 등 개혁안 발표


뉴욕교협 43회기 신임임원들이 8일 리틀넥 뉴욕교협 회관에서 43회기 임원 구성과 운영방향에 관한 언론 브리핑 이후 기념촬영을 했다.

"상식이 통하는 교협 만들겠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신임회장 김홍석 목사는 지난해 부회장 출마 당시 소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31일 정기총회를 통해 뉴욕교협 제43회기가 공식 출범된 가운데 이번 회기는 김홍석 신임회장 체제 아래 뉴욕교협의 구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시사돼 주목된다.

뉴욕교협 신임임원들은 8일 오전 11시 리틀넥 뉴욕교협 회관에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3회기 임원구성과 운영방향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역별 자치회 도입을 비롯한 교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회장 김홍석 목사가 환영인사 후 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했으며 총무 임병남 목사가 중점사업 및 중요일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을 주고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치회 구성'이다. 뉴욕교협은 서부지구·중부지구·동부지구 3개의 상위 자치회가 14개 단위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제도를 실시, 지역별 정기모임을 비롯한 각 연합 집회들을 자치회가 주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개 상위 자치회는 별도의 대표를 두고 운영된다.

뉴욕교협은 "지역모임 중심의 교협 운영이 이뤄지게 된다면 지역모임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협은 교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연합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뉴욕교협 신임임원들은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불거지는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날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임원들은 "교협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등을 보고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원들은 재정 관리와 회계 감사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 임병남 목사는 "한 해 40만불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정확히 나와야 하고 감사는 그 예산에 대한 결산이 정확하게 진행됐는지만 감사하는 역할"이라면서 세부적인 감사규정을 올 회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밖에 현실과 거리가 먼 정관의 규정들이나 헌법과 세칙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욕교협 43회기는 '페이퍼 교회' 단호한 정리를 시사했다. 담당자들이 직접 교회를 실사하고 실제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회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이날 임원들은 목회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교회들의 위상을 높이고, 교협 회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뉴욕교협이 전통적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이번 회기만 적용되는 단발성 개혁이 아닌 장기적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뉴욕교협의 정관을 개혁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 개정은 임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뉴욕교협 43회기는 정관 개정 심의가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위한 임시총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소집할 방침이다.

[뉴욕기독일보]

은혜의 40년 '하나님 뜻' 위해 더 흐른다

제일장로교회 40주년 감사축제
소프라노 신영옥 특별공연


제일장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감사축제를 열었다.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가 창립 40 주년을 맞이해 "은혜의 40년, 은혜의 새 물결"이라는 슬로건 하에 준비해 온 40주년 감사축제를 6일(주일)에 개최했다.

특별히 이번 감사축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함께 하는 찬양축제였다.

찬양축제에 앞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삼정 목사는 "어제는 은혜의 40년이었다. 그러나 어제는 부족한 40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어제의 시간을 통해, 어제의 경험을 통해 오늘은 좀 더 지혜로워졌고 성숙해 졌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목적을 향하여 쉬지 않고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흐른다"고 말했다.

특별히 설교에 이어 나선 김성만 장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을 한결같이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한 서삼정 목사에게 전 교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준비위원장 이석주 장로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40년 간 목회하신 분은 미주뿐 아니라 해외 모든 한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아름다운 노래는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등 몇 곡은 제일장로교회 성가대 및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공연돼 더 큰 감동을 남겼다.

제일장로교회는 감사축제에 앞서 아이티의 고아들의 숙소를 지어주기 위한 골프대회와 서삼정 목사의 시화전, 아틀란타 미술협회원의 그림 전시회도 가진 바 있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9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독감 예방주사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다.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감기와 독감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미국에서 독감계절은 10월에 시작하여 늦게는 이듬해 5월까지 지속된다. 독감예방주사는 9월부터 시작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으리라 생각된다. 만약 독감 예방주사를 아직 맞지 않았다면 주치의를 방문,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장한다.

미국질병예방센터인 CDC자료에 의하면, 1976년~2007년까지 31년간, 미국에서 독감시즌에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수가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4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당뇨, 고혈압, 신장병을 가지고도 사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독감같은 감염은 만성질환 환자나 노인층에는 또다른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 감염사태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신장병이 있는 환자들이었고, 투석센터에서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되었었는데, 그 상황은 메르스가 전파된 중동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신장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남들보다 더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들어 독감으로 사망한 인구중에 80~90%가 65세 이상의 환자였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층이나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감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잘 알려주는 정보라 할 수 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6개월 이상된 아이부터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알러지나 계란에 알러지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특히 독감주사를 맞고 오히려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 독감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일반 감기에 걸린 것이며, 독감주사를 맞고 감기증상이 온 사람들이 야말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 평소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면역체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더 떨어진 순간에 감기 바이러스와 접촉해서 감기가 걸리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독감과 감기의 차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우리들이 흔히 걸리는 보통 감기는 대부분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아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 자체가 다르며, 독감 예방주사는 건강 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주사이니 특히 노약자나 성인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병 없이 평안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건강할 때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오픈청지기재단 지원단체 모집

"접수마감 11월 30일(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올해로 6년 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올해도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픈청지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접수마감: 11월 30일(수)까지 *웹사이트: www.openstewardship.com
*문의 : 213-593-4885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 h a n k s G i v i n g



팰리세이드 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Palisades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8:30 AM	한국어 Korean
	11:00 AM	한국어 Korean
	1:00 PM	영어 English
기타	8:00 PM	수요예배
	5:30 AM	새벽기도회 월–토
교회학교	11:00 AM	유아유치부
	11:00 AM	유년부 (1~3학년)
	11:00 AM	초등부 (4~5학년)
	11:00 AM	중등부 (6~8학년)
	11:00 AM	고등부 (9~12학년)
	8:00 PM	중등부,고등부 성경공부


김성민 담임목사

www.PalisadesChurch.org

주소 및 전화
236 Old Tappan Rd., Old Tappan, NJ 07675
Tel : 201-258-8383

나성임마누엘교회


최순길 담임목사

복음의 향기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7:00
새벽예배 오전6:00(주일)

주소 및 전화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el 714)743-0141 email : skchoi1221@gmail.com

사랑실천의 생명운동

요한일서 3:13-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사랑과 미움이 상반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듯이 사랑의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가고 미움의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본문 13, 14절은 아직도 사랑과 미움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9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사람 즉,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고 전도하면 배척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이름 팔아 사기를 치거나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인격도,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은 옛날 죄악근성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10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고 하십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인은 농사지은 것 가지고 속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했음에도 그 아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자기 제사가 거부당한 것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거나 정성의 부족함이 있어서이지 상대방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근본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고 분별력을 갖지 못했으니 옳고 그름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불의와 죄악으로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아벨을 죽였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로부터 미움과 환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11~12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당하는 핍박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남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실수한 죄값으로 당하는 행패를 팝박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맞을 짓을 해서 얻어 맞으면서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았고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즉 마귀 그늘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의 동기는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미움으로 살기(殺氣)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실천을 통한 생명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도 버리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탄생으로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빼앗기신 그 목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을 수 있는 죄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실천을 통한 생명운동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성과 때문에 내 육체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통하여 시작된 살인은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습니다.

요즘 뉴스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열여섯 명을 죽이고 여섯 명을 불구자로 만들고 상처를 입혀 총 24명을 해쳤다고 했는데, 그후 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태연스럽게 끌려 다니면서 현장검증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잘 사는 사람이 밉고 세상이 미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해서 돈 벌어 살 수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주어진 여건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밥 먹고 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 가로채 먹으려 하다가 뜻대로 안되면 죽이는 못된 짓을 해놓고 세상이 미웠다고 말을 합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미웠으면 잘사는 사람들을 해쳤어야 하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움의 싹이 자라 다른 생명들을 이유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명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으로 미움의 싹이 자라나게 되면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참 사랑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씨(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이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되살리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내 목숨 투자할 각오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계시면서 아무개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냥 거절하고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말과 혀로 부담없는 사랑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푸는 사랑의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하고 뜨겁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생명 운동에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보장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미움으로 시작되는 살인은 내가 괜히 미워해서 남을 죽이고 결국 그 죄값으로 나도 죽고 멸망해야 하는 비극을 장만하는 어리석음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누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14)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 h a n k s G i v i n g

남가주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황영 담임목사

www.rpcsc.com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2:45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학생부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오전 6:20(토)

주소 및 전화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326-0300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김인식 담임목사

www.iwhpc.org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주소 및 전화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피아노 반주자 모집

주님세운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주일 2부예배(오전 11시) 및 성가대 반주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제출방법 – 서류를 jscoffice01@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6년 11월 30일(수)

문 의 주님세운교회 사무실 310-325-4020
행정담당 신상희 목사 909-282-2513

해외한인장로회 주님세운교회
Junimseun Church of KPCA
담임목사 박성규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젼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5.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까지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email: lahanmichurch1@gmail.com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교육칼럼(10)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5)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기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개리 챕먼 박사는 청소년에게 다섯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 physi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습), 그리고 gits(선물).

이번에는 지난 번에 이어 양질의 시간(quality time)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보기로 한다.

만약 대화가 단절된 가정, 또 십대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가장 먼저, 부모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언쟁, 다툼, 과격한 말, 이런 것이 오가고 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솔선수범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와 풀어야 한다.

부모는 절대 "그래도, 내가 아버지/엄마/부모인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목적이 아니다.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면 아이와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십대 자녀가 화가 단단히 나 있다면,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 화를 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아이가 대화를 거부할 때 억지로, 권위로 대화를 요구해선 역효과가 날 것이다. 때로는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부모는 평상시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도와야 한다. 좋은 친구는 십대 자녀의 "위기"를 잘 넘기도록 돕는 아군이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좋은 친구를 만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가르치고 투자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추가한다면, 부모는 학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렇기에 학교를 선택할 때 그저 학업성과나 백인밀집 지역을 따지기 보다, 학교와 학교 커뮤니티의 문화, 정서, 분위기, 다시 말하자면 표면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잘 고려해 보길 권장한다.

또 아이가 교회나 학교에서 좋은 멘토나 선생을 찾도록 도우는 것이 상책이다. 때로는 철이 든 사촌 누나나 형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건강한 관계는 부모가 십대 자녀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큰 힘이 되어준다.

그러니, 평상시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게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부모가 되자.

예를 들어, 교회 주일학교나 성경공부반 같이 좋은 그룹에 간식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 생각한다.

포인트는, 가족과 식구 외에도 십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 상황, 자원, 인력이 있다는 점이다.

십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가족 여행, 친지 생일 참석, 교회 이벤트 참여, 등) 꼭 아이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아이의 스케줄을 참고해야 한다.

때로는 아이의 스케줄 때문에 일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십대는 자신이 중요히 여기는 일정이나 스케줄을 부모가 마음대로 바꾸면 당황스러워 한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아이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자리잡는데, 마치 부모가 자신을 어린아이 같이 취급한다,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노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를 거부하는 십대 자녀를 꼭 끌고가지 않는 것도 좋다. 예를들어, 친척집에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할 때, 그런 아이를 억지로 끌고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그냥 아이를 집에 두고 원하는 식구만 참석하는 것도 때로는 지혜로운 한 방법이다.

자, 그럼 자녀와 양질의 시간(quality time)을 갖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 아이디어가 부족한 부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벤트와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어렸을 때부터 가족 행사 때 비데오나 사진 찍기를 아이에게 맡긴다.(아이가 원한다면)
- 아이에게 가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하라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좋은 곳이라면 방문한다.
- 아이가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아이가 직접 운전해서 원하는 곳을 함께 방문한다.
- 아이가 원하는 영화를 함께 본다.(연령에 맞는 콘텐트일 경우)
- 아이와 함께 음식을 만든다: 컵 케이크, 쿠키, 빵, 수우프 등.
- 가족 사진첩을 가끔 꺼내어 아이와 함께 보고 추억과 감사를 나눈다.
- 형제없이 한 아이와 아침 식사를 하며 따로 시간을 보낸다.
-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음악을 같이 감상하거나 악기를 함께 연주한다.
- 아이와 스케줄을 잡을 때 아예 핸드폰에 입력함으로 잊지않을 것을 약속한다.
- 특별행사나 여행으로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예: 프로농구 게임; 캠핑; 콘서트 등)
- 가능하다면, 직장에 아이를 하루 데려가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하루를 보낸다.
- 가족의 특별 메모리, 행사를 만든다.(예: 매년 크리스마스에 It's a Wonderful Life 를 함께 본다든지, 매달 마지막 주일 저녁 식사는 가족단위 외식으로 하기 등;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가정이 50%도 안된다)
- 가족이 함께 보드게임을 즐긴다: 모노폴리, 라이프, 리스크 등 몇 시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많다.
- 가족 여행을 통해 끈끈한 가족 관계, 가족만의 추억을 만든다.
- 가끔 가족이 함께 산책하거나 하이킹을 즐긴다.
-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라.
-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어렸을 때 같이 tuck in 하지 않더라도, 이불을 덮어주고 Good night, I love you 같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에게 축복기도를 해 주라.
- 아이가 원하다면 숙제를 도와주라.
-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라.(아이와 함께 나무나 야채를 심을 수 있고, 정원을 가꿀 수 있으며, 잔디를 함께 깎고 비료를 뿌릴 수 있다)

자, 이 외에도 마음만 먹으면, 부모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 이벤트, 그리고 방법은 많다. 결정적인 요소는 부모의 의지이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

좋은 시간을 함께 갖는다는 것은 평생 잊지못 할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은 잠시 삐뚤어진 십대 자녀의 태도와 행동과 닫힌 마음을 결국 부모와 가족이란 테두리안으로 인도할 하게 될 것이다.

●정운길 칼럼(5)

웃음 보약으로 건강하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웃음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하루 15초 웃으면 2일간 수명이 연장되고, 하루 45초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고, 환자가 10간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동안 고통 없이 편하게 잘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웃음은 해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와 같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제거된다. 또한 웃음이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웃으면 뇌하수체에서 엔돌핀 등 호르몬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3분간 웃으면 11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데 이는 에어로빅을 5분간 한 운동량과 맞먹는다. 반면에 3분간 전력 질주하면 17칼로리가 소모되며, 3분간 조깅을 하면 8칼로리가 소모된다. 웃음이 조깅보다 더 운동량이 많다.

우리 몸속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들썩인다고 한다. 한번 웃을 때마다 3분의 1의 근육이 활동함으로 활력이 생기고 웃고 난 후에는 근육의 긴장이 이완돼 편안함을 느끼고 소화활동이 왕성해진다. 웃을 때 배꼽을 잡고 크게 웃으면 상체는 물론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들어 상당한 운동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웃음 속에 행복과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숨어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웃음 속에 있고 웃음 속에 행복이 있다.

'얼굴' 이란 제목의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이라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 않다.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이라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다."

기쁘다는 표현이 웃음이므로 우리는 많이 웃어야 한다. 웃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최고의 지금길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선교하던 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웃음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태국사람들을 '스마일 피플' 또는 '미소의 나라'라고 한다.

우리가 겪는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을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웃어주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되지만 웃음으로 화답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각인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웃음을 주지 않는다. 잘 웃는 사람은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진다.

잘 웃는 사람이 매사에 자신 있어 보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사회생활 적응도 빠르다.

행복은 웃음의 길이만큼 자라간다고 한다. 웃음은 영혼의 호흡이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어가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함이 어떨까.

“함 께 섬 기 겠 습 니 다”

All Together

금번 제47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제50대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신구 회장단의 이취임식 감사 예배가 연합으로 윌셔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두 단체에서 이취임식 행사에 사용되었던 경비를 함께 한 장소에서 드리게 됨으로,
절약된 경비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학 사업에 한 마음으로 지원하기로 회장단에서
결정해서 함께 이취임식 행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회장단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9대, 제50대 회장단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6대, 제47대 회장단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0대 회장단 이취임식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7대 회장단 이취임식



엄규서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49대 회장



강신권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46대 회장



김영구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50대 회장



최순길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47대 회장

일시: 2016년 11월 27일(주일) 오후 4:30
장소: 윌셔연합감리교회
주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T.(213)905–0380 (최경일 교회협의회 총무)
T.(310)292–2288 (한대명 목사회 총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남 가 주 한 인 목 사 회
Southern Ca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예장 통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개최

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이 14일 오후 서울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 시국에 대해,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자리였다.

먼저 신정호 목사(총회 서기)가 인도한 1부 예배에선 이성희 총회장이 '현대 교회의 기능과 하나님의 영광'(역대하 6:20~21, 7:1~3)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마음이 답답하고 침울하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시국을 맞아서야 기도하게 된 것 같아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들이 혼탁하고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참담한 심정으로 '과연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며 "그런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특히 "이번 사태는 영적 싸움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많다. 우리는 뱀을 불속에 던져 넣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소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며 "하나님은 이 민족과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현대 교회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림인식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는 모두 마쳤다. 이후 시간은 교단 관계자의 인사말이나 축사 없이 오직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다. 참석자들은 '회개의 기도'를 시작으로 '간구의 기도' '다짐의 기도' 순서로 각각 그에 맞는 기도제목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다.

'회개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인도자로 나선 박웅섭 목사(총회 신학교육부장)는 "국가와 위정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다"며 "국정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안옥섭 장로(총회 규칙부장)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였나이다. 작은이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지 못하였나이다. 소금과 빛 된 삶을 살지 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개혁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간구의 기도'를 인도한 박순태 장로(서울노회장)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공직자들이 겸손하고 진실 되게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감당하기를 간구한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련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끝으로 '다짐의 기도'를 인도한 이정일 목사(제주노회장)는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섭리를 깨닫는다. 이것을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대표회장 이주태 장로)가 주관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가 '주여!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를 주제로 15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격 기도회에 앞서 인사말한 임원순 목사는 "국정이 농락당하고 백성의 울부짖음만 거리에 가득하다. 나라는 찢겨져 신음을 하고 말씀은 빛을 잃어버린 안개 속에 있다"며 "마치 사사기의 끝처럼 왕이 없어 제 각각 그 생각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제 이 어둠을 걷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구국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진옥 목사(평생목회 대표회장,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의 선언문 낭독,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메시지 선포 및 기도, 지덕 목사(한기총 증경회장)의 격려사, 김윤기 목사(한교연 명예회장)의 통성기도, 박중선 목사(한기총 사무총장)의 인사말, 신신묵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선언문을 낭독한 이상모 목사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원로목회자들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고 했다.

메시지는 원로목회자들을 대표해 최복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증경회장)가, 현역 목회자를 대표해 이태희 목사(한기총 명예회장)가, 평신도를 대표해 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가 각각 전했다.

또 김동권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한은수 감독(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대표회장), 김경래 장로(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상임이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했으며, 기도회는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를 부른 것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다.

김진영 기자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제공

청소년 선교, 주변교회와 전문선교단체 협력필요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가 최근 승동교회에서 '2016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어려워진 다음세대 청소년 선교에 대한 현황과 제안을 전한 이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신진학자로 나선 오은국 목사(호서대학교)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학원선교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대 교회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던시대로 인한 교육의 붕괴와 문화의 혼재 속에서 성인기로의 접근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했다.

오 목사는 "교육의 붕괴가 또 다른 연합체의 모습으로 변형을 바꾸어 새로운 문화와 교육으로 현대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영향들에 힘입어 청소년 선교의 중심에 있는 학원선교는 더 없이 힘든 시기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청소년단체의 수고와 노력은 기독교교육계에 본이 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격려했다. 또 "교회와 청소년 선교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학원선교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 선교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조은식 기자





트럼프를 만나 환호하고 있는 그의 지지자들.

美복음주의 기독교인 81% 트럼프를 찍은 이유

[1면으로부터 계속]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몰표는 낙태, 종교의 자유 등에서 미국사회의 방향을 정할 연방대법관 임명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음주의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연방대법관은 한 자리가 공석이다. 나머지 8명의 연방대법관은 진보 4 대 보수 4로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보수 혹은 진보로 가느냐가 달려있었다. 현직 연방대법관 중 3명이 83세, 80세, 78세로 고령이라 차기 대통령은 이들의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가운데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겠다며 21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모두가 낙태를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판사들이었다.

트럼프는 낙태할 수 있는 경우를 까다롭게 정한 법을 만드는 등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정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친 생명 입장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3차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임신 말기 낙태까지 찬성한다고 밝히자 트럼프는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임신 말기 낙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트럼프의 입장은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5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낙태를 시술하다 얼마 전 낙태한 태아의 신체를 매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단체인 플랜 페어런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과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1973년로 대 웨이드 판결 (Roe v. Wade) 폐기를 주장해온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죄로 보는 기독교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차별했다는 이유로 꽃집 주인, 사진사, 제과점 주인 등이 처벌받자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쓰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트럼프는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 지난 13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친 생명 입장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했으니 끝난 이야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이 13일 CBS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美 CBS방송 영상캡처

트럼프, 동성결혼 허용…낙태는 반대

기존 입장과 대치된 모습에 복음주의 기독교 지지층 우려 클 듯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허용' 입장을 밝혀 그동안 그를 지지한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해 "내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성결혼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결정이 난 사항으로 합법화된 것"이라고 그동안 자신이 주장한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이는 또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의회 내 공화당 지도자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낸 것과 대치된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선거유세를 통해 주장했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함으로 향후 그를 지지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앤터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사망하고 나서 공석인 자리에 '낙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고, 그가 낙태 합법화 판결인 '로 대(對)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지금 대법관 구성은 진보와 보수가 4대 4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지금까지 인준을 거부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낙태권을 명시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말하며 "나는 생명 친화적이며 신임 대법관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아예 낙태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낙태권에 대한 결정을 다시 각 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면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낙태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받지 않을 것"이라며 "법으로는 1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봉으로 이 금액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이후 연봉으로 40만 달러(약 4억7000만 원)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또 "해야 될 일이 많다. 미국인을 위해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세금도 낮추고 헬스케어 문제도 살펴야 한다"며 "휴가를 많이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200~300만 명에 달할 수 있는 범죄자, 범죄기록 보유자, 범죄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들을 나라에서 내쫓거나 수감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와 있는 이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밝혔다.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영화 〈사도〉의 한 장면 ⓒ스틸컷

北 기독교인의 75% 이상 투옥과 고문 등으로 핍박받아

북한 내 기독교인의 75% 이상이 투옥과 고문 등으로 핍박받고 있다고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인구 수는 6만5천명이 넘는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고문을 통해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

북한에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실은 탈북자 1만1,370여 명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탈북자 중 1.2%는 북한에서 몰래 '지하교회'를 운영하며 신앙을 지켜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기독연대(CSW)는 지난 9월 '종교적 자유와 신념에 대한 핍박을 거부한다'(Total Denial: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북한에서 국가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기독교인들을 가둔 뒤 증기롤러로 고문한 사실 등을 적어 고발한 것이다.

북한에선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한 핍박도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종교를 가진 이의 친인척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CSW는 "북한은 범죄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를 적용해 기독교인의 가족이 신앙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억류한다"며 "심지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본국으로 송환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만다"고 전했다.

또 CSW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국민의 신앙심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을 '최상위 지도자'로 여기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라 기자

올해 약 1만여 기독교인 순교…2천4백여 교회 핍박받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IDOP)'이 지난 6일과 13일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1998년 매년 11월 첫째와 둘째주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로 지정한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는, 2014년 11월부터 1년간 7,0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순교한 기독교인 수가 그보다 3,000여 명 늘어난 1만여 명이있으며, 핍박받은 교회 수는 2,4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도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은 안전과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을 좇는 용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인권단체 월드헬프(World Help) 베몬 브루어(Vemon Brewer) 회장도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루어 회장은 "지금보다 핍박이 심한 때는 없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전세계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어 회장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이틀 전인 6일 IDOP 행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유럽연합 특사 얀 피겔(Jan Figel)은 지난달 "일부 테러 조직은 조직적으로 살인하고 대량살인까지 불사하며, 실제로 기독교인의 순교와 핍박을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핍박받는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도"라며 "어디서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고통을 이겨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소라 기자

美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 다룬다

전국 공립학교 및 각 주 관련 법령에 지대한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화장실에 대한 소송을 다루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연방 교육부와 총무청 등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인지적 성(Gender)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라는 행정 지침을 산하 기관들에 내리기도 했다.

이 명령은 전국 공립학교, 연방정부 소속 건물들 내 모든 화장실에 적용된다. 정부뿐 아니라 대형소매점인 '타겟'은 매장 내에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정책적으로 승인하는 등 이 문제는 전 미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는 버지니아 주의 17세 여학생이 학교 남자 화장실을 쓰겠다며 제기한 소송(Gloucester County School Board v. Gavin Grimm)을 다룬다. 여자로 태어난 개빈 그림은 2014년 남자 화장실을 쓰도록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학교에 제기했고 학교는 그림이 남자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을 쓰도록 조치했다.

그림은 학교의 이런 결정이 성적 차별을 금지한 개정교육법 제9조를 위반한다면서 글라우세스터 카운티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그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림은 항소했고 제4순회 항소법원은 2-1로 그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대해 카운티 교육국은 연방대법원에 제소했고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전국 공립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는 물론 각 주의 관련 법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향후 성차별에 관한 적용 범위도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개정교육법 제9조에 의거해 교육 기관 내의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개정교육법상에 생물학적 성인 Sex라는 단어로 차별이 금지된 내용을 인지적 성인 Gender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는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화장실을 강요하면 성차별로 간주한다. 또 성전환을 위한 수술을 받지 않아 외형적으로 특정 성별의 사람일지라도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때 이것을 막으면 불법이 된다.

김준형 기자



마트 시모니 교회에서 사제들과 연합군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다. ⓒ英크리스천투데이

이라크 모술의 교회…2년 만에 첫 미사 드려

2년에 걸친 IS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라크 모술의 한 교회에서 사제들이 처음으로 미사를 드렸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술 동부인 바시카의 마트 시모니 교회(the Mart Shmoni Church)의 사제는 IS에 점령당했던 교회가 해방된 이후 처음으로 미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기독교인들이 살던 모술과 주변 마을들은 지난 2014년부터 IS의 지배 아래 있었다.

IS가 떠나고 많은 도시들이 자유케 됐으나, 여전히 시민들이 돌아와서 살기에는 어려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교회로 돌아온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지난 10월 30일, 수십 명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모술 카라코시에 있는 무원죄 잉태교회(The Church of Immaculate Conception)에 모여 기념 예배를 드렸다. 카라코시는 한 때 기독교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모술에서 태어나 자란 시리아가톨릭교회 부트루스 모쉐 사제는 "오늘 카라코시는 다에시(IS를 일컫는 아랍어)로부터 해방됐다.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희생시킨 분쟁과 차별, 선동 등 다에시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 사이에 놓인 정치적·종파적 분쟁과 분열 등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시카의 옥소도스교회(Orthodos Church)의 수장인 불스 메이트 아프람 신부는 지난 10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따라올지 불안하다. 많은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이들이 니네베(성경 속의 니느웨) 평야에서 다시 살려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에시가 돌아갔다고 해도 모술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건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율법은 예수님 탄생 전후로 나뉜다



ⓒ더가스펠코얼리션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각각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알 때 율법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은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유목민들을 위한 것이며, 민법은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듯 율법은 각 사람의 삶이 된다.

성경은 외설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 성적인 문란은 우리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를 망치고, 건강한 삶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신약과 구약의 주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존재이다. 구약 시절에는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는 반면, 이후에는 율법 이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복음의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구약의 명령은 일부 폐지됐고, 예수님이 보이신 속죄를 위한 희생과 관련한 법들은 구체화됐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관과 동의로 이뤄진 계약과 다르다. 이것은 사랑이 바탕이 돼 서로를 보호하고 아낄 수 밖에 없는 우정과도 같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31절을 통해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박소라 기자



앨런 튜링의 삶의 모티브로 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한 장면 ⓒ영화사

북아일랜드, 영국·웨일즈 따라 '동성애 소급 사면' 추진

북아일랜드가 영국, 웨일즈와 같이, 동성애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급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최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스토몬트 의회는 지난해 영국의 치안범죄법(the Policing and Crime Bill)에 있는 사면 관련 조항을 지지하고 나섰다.

클레르 석든(Claire Sugden) 법무부 장관은 "동성애와 양성애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주기 위해 가능한 빨리 사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현재 법안으로 드러난 방식보다 더 쉽게 의결할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든 법무부 장관은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사후 사면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영국에서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영국의 수학자, 논리학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앨런 튜링(Alan Turing)의 이름을 딴 '튜링법'(Turing's Law)에 따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앨런 튜링은 1952년 동성애법으로 기소되고 시안 중독으로 2년 뒤 사망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2013년 앨런 튜링에게 사후 사면을 허가했으며, 지난 10월 영국은 '튜링법'을 발표했다.

박소라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김영길** 담임목사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밀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새로운 여행 문화의 선구자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특선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숙박 특선!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이제 품격을 즐기세요"
"럭셔리의 극치 벨라지오 숙박, [라스베가스 헬기] 포함"

SPECIAL 벨라지오 GUARANTEE

푸른만의 5대 특전
1) 벨라지오 호텔 2박
2) 헬기투어 포함
3) 식사 5회
4) 아울렛 무료셔틀
5) 대형 리무진

라스베가스 자유여행 벨라지오 2박/3박

3일 ▶ 11/24,25 $345 4일 ▶ 11/24 $456

1. 라스베가스 최고호텔 '벨라지오 숙박'
2. 라스베가스 스트립 '헬기투어 전격 포함 ($120불 상당)'
3. 블랙프라이데이 프리미엄 아울렛, '무료셔틀 운행'
4. 가족과 연인과 여유있게/자유롭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세요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레드락캐년/후버댐 옵션관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그래퍼와 함께 가는 사진여행, [레인보우 유람선] 포함"

레인보우 브릿지

SPECIAL 벨라지오 GUARANTEE


남가주사진작가협회 김 상 동 회장 동행



1. 서부 최고의 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유람선 포함 ($150 상당)'
2. 레인보우 브릿지로의 가벼운 산책후 만나는 300피트 자연석조다리
3. 특급 벨라지오 1박 , 파웰 리조트 1박

3일 ▶ 11/24,25 $345

"4성급 호텔 숙박, 조/석식 포함"
버디캐년 낭만기차 4시간 탑승 "

★★★★ 4성 호텔

미티어 크레이터 /세도나 (버디캐년)낭만기차 일등석 Gurantee



1. 세계 최대 운석분화구, 미티어 크레이터
2. '세도나 기차 포함($100 상당)'
3. 블랙프라이데이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
4. 카우보이 쇼 & 디너

3일 ▶ 11/24 $345

"대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자이언 캐년에서 [바비큐파티] 포함"

SPECIAL 벨라지오 GUARANTEE

자이언 캐년 트레킹



1. 익숙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난이도별 트레킹
2. 트레킹 전문가와 쉐프가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
3. 특급 벨라지오 1박

3일 ▶ 11/24,25 $345



봉쥬르~ 퀘벡

$1,399 ▶ $1,249

4일 ▶ 11/24

시작부터 끝까지 클로이 인솔자가 동행 합니다.

캐나다 속의 유럽, 북미의 파리를 느껴보세요~

1. 올해 나이아가라를 관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 별도의 휴가 없이 연휴 3박4일을 알차게 보내세요~
3. 퀘벡과 몬트리올, 오타와까지 제대로 즐기는 캐나다 동부



치첸이사 / 캔쿤

$1,399

4일 ▶ 11/24

꿈의 휴양지, 카리브해의 낙원 캔쿤으로의 여행~

1. 치첸이사 관광, 한국인 가이드 동행 특선!
2. 최고급 리조트인 문팔레스 리조트 ALL- INCLUSIVE 서비스
3. 추수감사절 '골프 무제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치첸이사 한국인 가이드 동행!

크루즈 (Cruise)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을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 페루-칠레-아르헨티나-포클랜드제도-우루과이-브라질 ▶2017년 1월 14일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쟈네이로 20일 $4,299
▶ 브라질/아르헨티나 악마의 목구멍 심층감상/브라질의 상징 리오데쟈네이로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 발파레이소/푸에르토몬트/아말리아빙하/푼타아레나스/우수아이아/푸에르토마들린/부에노스아이레스 ▶2017년 1월 17일

지중해 크루즈	9일	[특별가] ▶4/22	$2,399
PACIFIC COAST WINERY 크루즈	8일	▶수시출발	$799
MEXICO RIVIERA 크루즈	8일	▶12/10	$699
바하멕시코	4일	▶매주 목,금	$299 부터
바하멕시코	5일	▶매주 일,월	$299 부터
바하 캐러비안 크루즈	5일/8일	▶수시출발	$799
전세계 크루즈		▶수시출발	

Winter Special 1.
북해도 7일
北海道 온천+동경까지
▶2/15 $2,999
1. 눈꽃과 온천을 함께 하는 푸른만의 북해도 겨울 여행
2. 삿뽀로 오오도리 공원

노팁! 노옵션! 항공 포함! 인솔자 동행
삿뽀로 특식 3대 게 무한리필 특선 포함!!!

Winter Special 2.
퀘벡 5일
나이아가라 폭포+스키
▶12/16,23,30 1/13,20,27 $1,399
1. 북미의 잉글랜드,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2. 와이너리 투어

나이아가라 테이블 락, 지하동굴
온타리오 최대 규모 스키 리조트, '블루마운틴'

Winter Special 3.
오로라 5일
알래스카 기차여행
▶목요일 (12/1 부터) $1,300
1.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2. 페어뱅스 역사박물관, 산타마을 얼음호텔 등 다양한 볼거리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

Europe Special 1.
이태리 일주 8일
▶12/13 $2,399
뉴욕 - 밀라노 - 베로나 - 베니스
몬테카티니 - 피렌체 - 티볼리
폼페이 - 쏘렌토 - 나폴리 - 로마 - 뉴욕

지중해의 열정이 가득한 여행~
베니스 곤돌라 체험 / 산마르코 성당

Europe Special 2.
스페인 완전 일주 8일
▶11/20 $2,399
뉴욕 - 마드리드 - 톨레도 - 세비야
론도 - 그라나다 - 발렌시아 - 뉴욕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여행~
프라도 미술관 / 톨레도 대성당 / 알함브라 궁전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1등 아메리카 대륙

미서부
매주 화요일 특급 벨라지오 호텔 숙박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 매주 화 / 토			

고객감사 단4회 한정 특가! $149



세도나 3일 ▶ 11/28 12/5, 12, 19 [단4회]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샤토프롱트낙 숙박
퀘벡 2박3일 ▶매주 토 $429 +항공
▶세계문화유산 리도홀 / 성요셉 성당 / 노틀담 드캅 성당 / 몽모렌시 폭포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미동부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 매주 수/토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1,299 (항공포함)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을 위한 인도 선교의 중요성

인도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6,500여 종족 가운데, 1/3이나 되는 2,083 종족이 남아 있는 곳으로서,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인도를 세 번 (2010년, 2011년, 2016년) 방문 및 사역 (2016년 10월 3일~7일까지 신학교 선교학 강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이러한 인도에 대한 개관 (槪觀)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 개요

인도는 기원전 약 3300년 무렵부터 기원전 1300년 무렵까지, 인도아대륙에 최초로 등장한 고대 문명인 인더스 문명이 있었다.

또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무렵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의 대부분을 정복하였다.

한편 기원후 4세기 무렵 인도 북부에 출현한 굽타 왕조는 인도 북부와 동부까지 판도를 넓혔다.

712년에 우마이야 왕조의 장군인 무하마드 빈 카심이 신드와 펀자브를 정복하면서 이슬람이 인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15세기까지 지속된 이슬람이 인도를 정복한 결과로 델리 술탄 왕조와 같은 이슬람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이후 16세기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굴 제국이 세워져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18세기부터 영국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포르투갈 등 유럽 열강의 식민주의 주도권 경쟁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영국이 다른 경쟁국들을 전부 물리침으로 인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인도인들은 세포이 항쟁과 같이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고,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건국 지도자들의 견해차가 벌어져,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어 독립하였다.

이처럼 인도는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중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기원 전 약 3,000년경부터 약 1,500 년간 이루었는데, 이 시기는 고대 이집트, 앗시리아, 바벨론 문명과 거의 동시대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4대 종교(기독교, 회교, 힌두교, 불교) 중의 하나인 힌두교 (BC1,500여 년전)와 불교(BC 560여 년전)의 발생지이며, 현재는 인구가 중국(15억)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서, 2016년 중반 통계로 약 13억 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지방 방언을 포함하여 3,372개 언어이며,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16개 언어가 되는데, 이 중에서 18개 언어를 헌법이 지정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구의 38.5% 약 5억)가 사용하고 있는 힌디어는 전국적 공용어이며, 영어는 18개 공용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의 전체 면적은 3,287,263 km²(남북 3,300Km, 동서 2,700Km : 남한의 33배)로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으로부터 1947년 8월 15일에 독립하였고, 일인 당 국민소득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1,626 불이며, 수도는 뉴델리로서 인구는 약 2,175만 명(2011년)이 된다.

◈인도 선교의 중요성

인도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전승으로 내려오는 사도 도마에 의한 인도 선교, 둘째는 16세기부터의 로마 카톨릭에 의한 선교, 셋째는 1706년 유럽에서 인도에 도착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독일 할레(Halle) 대학 출신의 바돌로메 지겐발크(Bartholomew Ziegenbalg)와, 침례회 선교회 소속의 윌리암 케리(William Carey)에 의한 개신교 선교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선교사로 로마 카톨릭 예수회 소속의 로베르토 데 노빌리(Roberto de Nobili)는 1605년부터 죽을 때까지 약 50년 간 인도에서 사역을 하였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불리우는 윌리암 케리는 1793년부터 죽을 때까지 41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하였다.

이러한 훌륭한 선교 역사를 간직한 인도 선교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도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6,500여 종족(전체 인구는 약 15억: 통계가 약간 씩 차이가 있는데, 미전도 종족을 10,400여 종족으로 볼 경우에는 그 인구를 약 19억~21억 정도로 보기도 함) 중 약 32%인 2,083 종족이 모여 있는 곳으로써, 이들은 대부분 힌두교도(79.8%), 회교도(14.2%), 불교도(0.7%)들에 해당이 되며, 기독교(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등)는 2.3% 미만이 된다.

따라서 인도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약 1/3에 해당하는 종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써,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가장 큰 선교지이기 때문에, 인도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둘째, 인도는 예전의 4대 문명 발상지였으며, 고대 3대 실크로드 (Silk Road) 중의 하나를 이룰 정도로 지정학적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즉 'Back to Jerusalem'을 향한 선교운동의 세 길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회교권 국가들과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및 인도차이나 반도의 힌두교, 불교권, 회교권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중동 회교권 국가들과 인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전략적으로, 또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인도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셋째, 인도는 세계 선교를 위한 장기 및 단기 선교 훈련에 아주 적합한 언어, 문화, 종교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선교지이자, 현지인 사역자들의 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와, 선교지의 토착화를 이룰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토양의 선교지이라서, 인도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은혜한인교회의 인도선교 현황

은혜한인교회의 인도선교는 한기홍 담임목사의 비전으로, 2008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전도 종족사역 연합체인 FTT (Finishingthetask) 팀의 본부가 있는 CCCI(현 CRU)와의 협력사역을 통한 전도사역(KM & EM 단기선교팀에 의한)과 제자화 사역을 매년 해 오던 중, 2016년 2월에 뉴델리 인근에 은혜신학교(9개월 과정, 현재 37명 남자학생들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는 중)를, 김광신 원로목사와 한기홍 담임목사에 의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인도 선교는 지속적인 단기선교와 함께, 신학교의 제자화 사역, 신학교 졸업생들을 통한 교회개척 사역, 신학교 졸업한 사역자 관리 사역 및 기타 제반사역(community development적인 사역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인도 전역의 복음화와 인근 국가들에 대한 선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자화와 교회개척 및 토착화를 목표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현재 인도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국제사역) 선교사들로는 5unites(4 가정과 1 싱글 선교사로 전체 9명)이 수고하고 있다. 인도 선교 담당으로는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소속의 홍호철 장로가 2008년부터 잘 감당하고 있다.


전 세계 미전도종족 3분의 1인 2,083 종족이 인도에 있다.

따라서 세계 선교의 완수의 관점에서 볼 때, 미전도 종족(World A) 선교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고, 집중해서 해야 할 선교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www.internationalbulletin.org의 IBMR, 40,1 〈2016년 1월〉)으로 볼 때, 전체 선교사(전 세계 5,200여 선교단체의 41만여 명 선교사) 중에서 2.5% 정도만이 현재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또 이들 미전도 종족(World A)의 75% 이상이 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들이며, 이들의 90% 이상이 '10/40 창문'에 몰려 있으며, 나머지 20%정도는 정글, 산악 및 일반인의 접촉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부족민들로서, 원시 부족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의 미전도 종족 및 미전도 지역에의 선교는 마태복음 24장14절(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을 이루는 첩경 (捷徑)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단기와 중기 및 장기선교가 여러 형태로, 연합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양태철 목회선교학 박사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실버시티보험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산소 ▶ 수소 활성산소 ▶ H_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강한 항산화 물질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갸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안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 김태오 칼럼

'다윗과 골리앗' 모습의 2016미국 대선



김 태 오 목사
TVNEXT설립자&공동대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역대하7:14)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겸손히 회개하는 미국 안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이번 미 대선을 통해 보여주셨다.

모든 전문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냉소적인 부정적 예측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다.

지난 8년간의 오바마 정부는 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아래,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펼쳐왔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미국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원에서의 다수를 차지한 승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 승리였다.

이제는 교회가 책임을 완수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교회가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회복의 기회일 수 있다.

잃어버린 신앙의 자유, 훼손된 생명의 존엄성, 탐욕과 타락, 교활한 거짓의 영에게 속아 사망의 길로 치닫는 미국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늦은 비와 같이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긴급한 치유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기회를 흘려보내거나 여기서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죄-부르짖음-응답-망각-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면 그 때는 정말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새 대통령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때다. 지극히 부족해 보이고 흠투성이며 말을 가려할 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우시기 위하여 높이시고 세우신 줄로 믿는다. 미국의 새로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 어느 때의 어느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시기의 위급함때문이라도, 인간적인 부족함때문이라도 우리 미국 성도들은 그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가 정직한 대통령이 되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반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 트럼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한다.

끝난 싸움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극심한 자유진보주의적 행보가 예상된다. 이번 가주 주민발의안 64(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여유있는 통과만 보더라도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다. 자유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분류되는 세력의 반발과 계략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법안을 통해서든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든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해서 그 때마다 필요한 행동으로 이 땅의 타락을 막아내야 한다. 때로는 서명으로, 때로는 투표로,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막아내야 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한 열쇠다. 교회들은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키워내야 한다. 작금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이제라도 교회들의 주일학교와 청소년 교육이 단순한 성경지식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처럼 이방의 한복판에서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키워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인 여러 세상적 이슈(동성애, 낙태, 진화론, 미디어, 정치)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분별력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의 일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는 일군들로 키워내야 한다.

2016대선의 결과는 사람들의 말 그대로 '역사적'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의 사건으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큰 역사적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4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또 흘러갈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이다. "내가 허락했던 기회를 너희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실 때에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땅의 회복에 간절함으로 동참하는 교회들로 거듭나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 한수희 칼럼(15)-자기 이해의 힘<3>

두려움이란?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은 거의 모든 부분 두려움과 닿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의미는 그 연약함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왜곡되게 노출되는지를 안다는 것이며, 연약함을 지켜내려는 본능적이고 왜곡된 방어들이 어떻게 악하게 이용되는 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뚜렷한 대상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해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막연한 불안에서부터,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생기는 더 구체적인 두려움까지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하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돈 없이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해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행복을 느끼면서도 그 행복에는 끝이 있다는 두려움, 책임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사람들에 의해 과대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안에 존재하는 미움과 복수, 질투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지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 까지….그러다 보니 때론 '두려움을 두려워하는'지경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두려움은 두려워하던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부모를 닮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부모를 점점 더 닮아가고,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때론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있다. 다만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에 대한 그들의 반응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좀더 선명하게 말하자면, 두려움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반응과 건강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며, 건강하지 못한 반응에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강하게 보이는 반응과 약한 반응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한 반응이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자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띠며, 자신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자신의 나쁜 면을 감추기 위해 좋은 면을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약한 반응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약점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강한 자는 은폐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반면 약한 자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약한 자는 항상 강한 자보다 더 정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강한 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자기 약점을 숨기기 때문에 자기기만에 빠지기 쉽고 결국 스스로도 그 약점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유익이라 일깨우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시 되는 부분들이다.

반대로, 약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약한 자가 늘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삶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약점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강한 자의 강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짓눌린다. 강한 자의 강한 반응이 죄가 되는 이유는 강한 자가 그들의 승리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려고 약한 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은 외양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강한 반응이 약한 반응으로, 혹은 약한 반응이 강한 반응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밀접함은 쉽게 발견된다.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잔소리와 냉소를 참아내던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나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런 남편의 반응에 그 동안 남편을 휘두르던 아내의 격렬한 감정이 사라지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는 급격한 상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쉬운 예다. 결국 두 반응 모두 작용하는 기제는 다르지만 초래하는 결과는 같다.

우리 모두는 숱한 노력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려 할수록 우리의 자신감은 약해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보이는 반응들은 더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결점을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과 우리 자신이 가진 이상을 너무도 쉽게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우리의 본능을 억누름으로써 그것을 피하기보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위험한 죄성과 맞서는 끊임없는 분투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다는 것은 두려움과 항상 관계되어 있는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죄와 무관하게 된다는 자기 최면식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숱하게 일깨워 주고 계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이니 두려움이 들 때마다 "주님. 제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서둘러 고백하라고 재촉하시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 두려움을 고백하고 직면하며, 두려움의 강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오라는 말씀이신가?

지혜롭고 용기있는 선택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 자유함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길 기도한다

학생모집

모집부문

신 학 대 학 교 신학과 (BA)–4학년

신 학 대 학 원
1) M.Div. 교역학 석사과정– 3년 / 96학점
2) M.A. 목회학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과정–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3년 / 48학점
5) Th.D. 신학 박사과정–3년 / 56학점

강 의 일 정

요일	시간	학과목	교수
화요일	7pm~9pm	바울서신	엘리야 김 박사
목요일	10am~12pm	신약신학	고영준 박사
	1pm~3pm	현대 교회사	민준기 박사
	3:10pm~5:10pm	기도학	김정복 박사
	5:20pm~7:20pm	현대신학 사상사	이경화 박사
	7:30pm~9:30pm	헬라어	송인 박사
토요일	10am~12pm	이미지를 통하여 성경 이해하기	송인 박사

*바울서신,기도학, 성경 이해하기는 평신도 청강을 환영합니다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러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213-272-6031, 213-235-6889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초대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잔치로...

환영합니다.
만남과 축복의 장소에 오심을...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제를 통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와 보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배 안내

예배 요일	예배시간
주일 예배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매일새벽예배	매일 오전 6시

매주 목요일에는 프드뱅크로 성도들의 가정을 섬깁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엘리야 김 목사 (213)272-6031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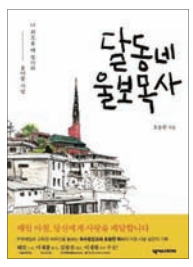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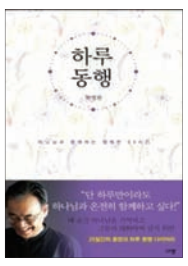
신간 추천

달동네 울보목사
호용한 | 넥서스CROSS | 256쪽



서울 옥수동 산동네에는 재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오래된 가옥들이 그대로 남은, 이른바 '달동네'가 여전히 있다. 그 동네 한 가운데 섬의 등대처럼 우뚝 선 교회가 옥수중앙교회다. 이 책은 2001년 이 교회에 부임하여 지역의 가난한 교인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온 호용한 목사의 이야기다. 이 책을 읽다보면 호 목사가 왜 달동네 울보목사가 됐는지 알 수 있다.

하루동행
하정완 | 규장 | 232쪽



아쉽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은 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 세상을 살리고 영향을 주기도 전에 크리스천 자신이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산다. 이 책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선 단 하루 동안의 동행을 준비하지만 이를 계기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칭의의 여러 얼굴
제임스 패커 | 이레서원 | 304쪽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신칭의는 복음의 신비이며, 경이로운 은혜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이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할 뿐 아니라 그 지혜와 대치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 책은 이신칭의 교리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
공일주 | CLC | 504쪽



아랍어 낱말에는 어근이 있고 대개 세 개의 어근을 갖는다. 이 책은 아랍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꾸란 및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 등을 살핀 후, 종교적 어휘 "알라, 칼리마, 루흐"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랍어 수사법과 꾸란을 연구해 온 저자만의 독특한 학문 세계를 통하여 의미론과 해석학의 융합을 접하게 될 것이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

사복음서 내용 중 52개 주제 뽑아 간략하게 강해

한양훈 목사(서울 우리교회)의 강해 시리즈 〈내게 와서 배우라〉가 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5년 전 발간한 사복음서 52주제 강해집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들〉의 후속편으로, 사복음서 내용 중 52개 주제를 강해해 매주 성경공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주제는 5-8쪽 정도로 길지 않다.

저자는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교훈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분명하고 우리 영혼과 육체에 양식이 되는 가르침은 없다"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 겸손히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려면, 깊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 성경은 성령이 주도하여 기록하신 신비한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영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싶었고, 깨달은 내용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저술 동기를 밝히고 있다.

책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 '갈릴리 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 등 5부로 나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발자취를 따르고 있ek.

이는 故 박윤선 목사의 공관복음 주석 순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그는 나의 스승으로 그의 강의와 설교 그리고 주석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그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고, 나는 평생 동안 그를 닮기를 소원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한양훈
有하 | 290쪽

책의 제목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서 따 왔다. 책 제목의 성경 본문이 담긴 13장 '주님의 법은 쉽고 가볍다(마 11:25-30)'에서 저자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온갖 것을 가르쳤지만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버거웠다"며 "그래서 지치고 힘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 얽매지 않고 더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며 "대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30절)'고 말씀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그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영육이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평안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며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신자가 법을 지키느라 힘이 드는 종교가 아니라, 신자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이 임하여 일하는 종교"라고 전했다.

저자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해서는 44장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요14:25~26)'에서 "성령은 태풍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북스리뷰]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愛國史'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국가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장치훈 박사(글로벌 인성교육원)저, '대한민국 애국사'라는 한국 현대사책이 출판되었다.

10년 이상을 걸쳐 연구하고 조사하고 준비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그 놀라운 열정과 끈기, 도전정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옛날 로마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개선 장군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4마리의 백마가 그는 전차에 태워, 로마 시내를 행진(parade)하게 했다.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영예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장군이 탄 전차에 노예 한명을 태운다. 그 노예는 개선정군 바로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경고의 말을 한다.

라틴어로 'MEMENTO MORI !' 라고 계속 외친다. '기억하라, 죽음을!' 이란 뜻이다.

'언젠가는 너도 죽는다.', 또는 '승리했다고 오만을 부리다간 너는 죽는다.' 그런 경고다.

이 시간 필자는 'MEMENTO MORI' 대신, 'MEMENTO HISTORIA'를 외친다. HISTORIA는 라틴어로 역사를 의미한다. '기억하라. 역사를!'의 뜻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후세인들의 '기억'이다. 그 기억을 기록한 것이 '역사책'이다. 그러므로 '역사 책'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역사책들이, 과거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등, 편향적 해석, 더 심하게는 허구, 조작까지 하는 등, 왜곡된, 잘못된 것들이 많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역사 이해, 잘못된 역사관 때문이다.

◈왜곡된 역사책들이 많다

지금 한국에서 발간된 많은 역사책들, 특히 학교 역사 교과서 책들은 대부분 좌편향의 것들이다.

그 책들을 저술한 학자들은 대부분 '맑시즘' 역사관에서 나온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집필을 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책들에는 반한,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친러, 반군(反軍), 반 기업,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등의 내용들로 일관되고 있다. 사실(史實)을 왜곡하거나 '편향'적으로 기술해서, 전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반 대한민국'적인 역사교과서들이 다수다.

그러나 역사학자인 장치훈 박사는 '랑케'의 실증사관에 기초, '대한민국 긍정사관'의 토대위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애국사
장치훈
글로벌인성교육 | 538쪽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한국의 모든 역사 교과서들엔, '8.15 대한민국 건국일'이란 말이 빠져 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장치훈 박사는그의 책에서 1948년 8월 15일이 분명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절대로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3대 기본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 영토, 주권'이 없고, 세계 국가들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다. UN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그러므로 국부(국부)로 추앙받아야 한다. 이런 건국의 역사를 장 박사는 그의 책에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개천절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황당한 주장이다. 단군신화는 '신화'일뿐이다. '고조선'이란 '국가'가 있었는지도 분명치 않지만,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과는 직접 연결이 없다. 그러면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세운 신라(통일신라)나 왕건의 고려나 이성계의 조선이나 고종의 대한제국도 '건국'대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생존 현대사 주인공, 증인들

이 '애국사' 책에서 저자는 (1)해방과 건국 전후의 역사적 상황들, (2)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3)6.25동란 (4)4.19학생의거 (5)2공화국 (6)5.16군사혁명과 박정희 (7)제5, 6공화국 (8)한미동맹 (9)산업화, 시장경제의 기적 (10)기타 공산주의의 본질, '민주화'의 정체, 제주 4.3 사태 및 5.18 광주사건, 부르스 커밍스,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 등, 한국현대사의 각종 사건, 사실(史實)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긍정사관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감히 말한다. 이 책의 저자 장치훈 박사나 필자(김 택규)같은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한국 현대사를 역사책을 통해서 아는 세대인가?" 아니다! 직접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세대이다. 그 역사를 직접 살아 온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그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들 아닌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과거의 일들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 장 박사는 자기가 살아온 현대사이기에 자서전을 쓰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역사의 증인들이 생존해 있는데 그 과거사들을 잘못 보고, 왜곡하고, 빼고, 더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심지어 허위, 조작, 변조시키기까지 했다.

예를 들면, 4.19는 학생의거인데 '혁명'으로 둔갑되고, 간첩 혹은 '좌익'활동하던 자들이 민주화 투쟁 인사로 둔갑되고, 남로당, 좌익들에 의한 제주사건 등의 수많은 사건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되고, 국군과 경찰은 무자비한 양민 학살 세력으로 변조되었다. 그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국가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나라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라고.

지금 우리의 어린이들, 초중고생들, 젊은 세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깊이 주시해 볼 일이다. 앞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하고, 행정, 입법, 사법부의 지도자들이 되면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과거 제정 러시아가 어떻게 공산혁명이 일어나, 짜르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당 국가가 되었는가? 인구의 5% 밖에 안 되었던 볼쉐비키 당원들이 그렇게 해낸 것이다.

이런 때, '대한민국 애국사' 같은 올바른 '현대사' 역사 책이 나왔다. 이 '애국사' 책은 올바로 쓴 한국 현대사의 한 '샘플'이다. 바라기는 이 책이 널리 보급되고 읽혀져서, 한국 현대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는,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바로미터'역활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이 책이 많이 읽혀져, (헬 조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올바른 뿌리를 찾게 되고, 자랑스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택규 박사
감신대 교수 및 UMC원로

[추천도서]

손님에서 이웃으로·우정에서 복음으로

무슬림, 이슬람 이해돕기 스터디 교재



우리의 친구 무슬림
스티브 벨, 이슬람파트너십
IVP | 112쪽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함께 '이슬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동성애와 이슬람은 개신교의 강력한 저지 운동으로 주춤하고 있다. 동성애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한국에서는 '쌍둥이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두 주제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항목씩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포비아(phobia, 병적공포)'라는 시대언어가 있다. 포비아 앞에 명사를 넣으면 그 주제에 대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된다. '이슬람 포비아', 한국 기독교가 무슬림에 대해 포비아적 자세로 서는 것은 선교를 떠나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의 진격에 대해 마치 전염병을 대하듯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양상이 있다. 기존 한국교회에 몇몇 이슬람 소개 도서들이 출판·소개됐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적합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에 IVP와 이슬람 파트너십이 출판한 〈우리의 친구 무슬림〉에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슬림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가장 기초적 이해를 위한 저술이다.

책 자체에서 '무슬림 선교를 위한 스터디 교재'라고 했는데, '가장 기초'라고 해도 적합했을 것이다.

한국이 다문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와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무슬림은 증가할 것이다. 포비아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그 물결을 막지 못할 것이다.

대신 무슬림에 대한 균형 있고 바른 이해를 근거로 무슬림을 향해 접근해야 한다. 무슬림과 관계를 맺으려면 무슬림에 대한 명료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는 이미 경제적·학술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친구 무슬림〉에서는 무슬림을 향해 복음전도를 할 때, 금기사항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매우 기초적인 정보와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책은 '관계 맺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표제처럼 이웃과 우정에서 복음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책이 매우 기초적인 도서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한 우리 상황에서, 이슬람, 무슬림을 바로 알려면 〈우리의 친구 무슬림〉을 기초 필독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이슬람, 무슬림 기사를 읽을 때, 〈우리의 친구 무슬림〉을 두고서 판단해 보자. 이슬람에 관련한 도서를 읽을 때도 이 책을 옆에 두고 용어나 상황 등을 비교하면서 읽는다면 객관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친구 무슬림〉은 무슬림 이해를 위한 스터디 입문용 교재이지만,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해야 할 책이기도 하다. 항상 옆에 두고서 다른 저술과 정보와 비교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자기 이해를 증보시킬 수 있는 학습용 교재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November 17, 2016 Vol. 77

Post-Elections, Some Grapple with the Term 'Evangelical'

BY RACHAEL LE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s the next U.S. President came as a shock to some Christians across the nation, but perhaps equally shocking was the exit poll result that 81 percent of evangelicals voted for Trump.

Numerous Christians have written, tweeted, and posted their opinions online in light of the exit polls in terms of what 'evangelical' now means, and how they will associate themselves with — or distance themselves from — the term.

Fuller Theological Seminary's president Mark Labberton and president emeritus Richard Mouw issued a joint statement on Monday, saying that the term was "blurred" during the elections season "both because of the media and because of some evangelical voices."

"This polarization, even among evangelicals, led some to conclude that evangelicals on both sides were increasingly and inextricably bound to and complicit with scandalizing words and actions that degrade people and contradict and betray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y stated.

"Evangelical has value only if it names our commitment to seek and demonstrate the heart and mind of God in Jesus Christ," they said in the statement.

They added that Fuller will continue to identify itself as evangelical "because of its non-negotiable commitment to the evangel, God's good news."

However, some were more quick to distance themselves from or criticize the term, particularly the term, 'white evangelical.'

Ray Ortlund, pastor at Immanuel Church, tweeted on Wednesday, "I am not a 'white evangelical.' I am a Christian, a grateful member of the gloriously diverse Body of Christ."

"Congratulations to white evangelicalism on your candidate's win. I don't understand you and I think you just sealed some awful fate," tweeted Thabiti Anyabwile, contributor to The Gospel Coalition. "I'm not alone in seeing serious problems with evangelicalism's witness at the moment," he added in a blog post.

Author Preston Yancey tweeted, "So I guess I'm not an evangelical. Because I'm not whatever the hell this is."

"For white evangelicals who now feel like strangers in a strange land, this has been my experience as POC for most of my life. Let's talk," tweeted Helen Lee, author and director of marketing at InterVarsity Press.

Others in the public sphere shared similar sentiments as that of Fuller's presidents, expressing disapproval for what the term 'evangelical' has been used to refer to, yet still not completely disassociating themselves.

Katelyn Beaty, former editor at Christianity Today, wrote in an op-ed to the Washington Post that she felt that she woke up on Wednesday after the elections "to an evangelical family [she] no longer resembled."

"Although recently I have wished it were otherwise, evangelicals are my people," Beaty added. "But this time, this election, I can't defend my people. I barely recognize them."

Ed Stetzer, executive director of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wrote a blog on Christianity Today titled, "No, Evangelical Does Not Mean 'White Republican Who Supports Trump.'" He explained that researchers often use the term 'evangelical' to really mean 'White evangelical,' which could present inaccurate portrayals of the group.

"Some have said they don't want to use the label anymore, embarrassed because of its identification with Donald Trump. But that's backwards," Stetzer wrote. "It's not the label that supported Trump, it's people — White Evangelicals, primarily. But it's not politics that unite all Evangelicals; it's the gospel."



Korean pastors in the South Bay region gathered at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o pray together for the next U.S. President.

South Bay's Korean Pastors Pray for the President-Elect

BY JOHN LEE

A group of Korean pastors who serve in the South Bay region gathered on November 9 to pray together as they normally do on a monthly basis. But this time, they specifically prayed for the President-elect.

The prayer breakfast, which took place at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featured a sermon called "The king that God desires, the people that God desires (Numbers 17:14-20)," preached by Rev. Hwang Young Lee, senior pastor of Rejoicing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he elections in the U.S. have ended and a new president has been selected, but we must pray so that he will take hold of God's will and do politics for the people," said Lee. "Let us pray that he would listen to the voice of God throughout his term."

The pastors also prayed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in the South Bay region, for the nation, and for the next generation.

'What Are You Thankful For?' Majority of Americans Give Thanks to God

BY CHRISTINE KIM

When asked what they are most thankful for, most Americans say that they are most thankful for family, according to a new study from LifeWay Research. Six-in-ten Americans say that they are most thankful for family, followed by health (13 percent) and personal freedom (9 percent).

Respondents were also asked what they were thankful for in general, for which they were given ten options. The top responses included family (88 percent), health (77 percent), personal freedom (72 percent), and friends (71 percent). Fewer were likely to say they are thankful for fun experiences (53), achievements (51), and wealth (32).

"The blessings that matter most are the ones money can't buy," said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Scott McConnell said in the report.

When it comes to whom they give thanks, 63 percent of Americans say they give thanks to God. Others give thanks to family (57 percent), friends (31 percent), themselves (8 percent), or fate (4 percent).

Evangelicals (94 percent) are the most likely to say they thank God. More Protestants (90 percent) than Catholics (67 percent) give thanks to God, while more Catholics (65 percent) give thanks to family than do Protestants (49 percent).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Organizers Facing $28K Deficit in Fund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organized by Korean church leaders which took place on October 23 has resulted in a deficit of $28,611.59 as of November 10. The event brought in $59,256.96 in funds through donations, advertisements, and offering given by attendees on the day of the event, but expenditures for the event totaled $87,868.55. The deficit seems to be resolvable, as some $21,000 in funds have yet to be received for advertisements on the event pamphlets, and donations from some Korean churches which have already committed to contribute have yet to be received as well.

Organizers who hosted the event reported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the event during an evaluation meeting on November 10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Churches and church organizations were reported to have donated a considerable amount for the event. According to the financial report,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and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made a joint contribution of $5,000. It can be said that the two organizations made the contribution together since Rev. Paul Gihong Han is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s well as the president of a prayer ministry within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lso gave another $5,000 donation separately.

LA Full Gospel Church, Bethel Korean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and Sa-Rang Community Church each gave $2,000 in donations. A notable distinction with these churches is that they have given significant amounts in donations, yet the senior pastors did not participate as speakers or leaders of prayer topics during the event.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several instances in which those who gave a set amount of donations to events hosted by Korean churches asked to be speakers at the events, or the opposite, those who were invited to be speakers at certain events were asked to financially contribute to the events. Rev. Chang-Soo Roh, the senior pastor of Sa-Rang Community Church, sat around the center of the seating area at the prayer gathering and prayed with his congregants, while the English ministry pastor of Sa-Rang was featured as one of the prayer leaders. This event received some $19,400 in donations from 19 churches and three organizations.

Eight ministries and four businesses sponsored the event through advertisements on the event pamphlet. Organizers received $19,332 from advertisements and are still waiting on some $21,000. Those who attended the event gave a total of $15,524.96 in offering. Some 1,500 attended this year's event.

The financial report also states that $58,379.49 was spent on needs for the event itself. Included in that cost was $14,000 in rental fees paid to the convention center, and $36,000 in using broadcast and sound equipment.

Organizers spent some $3,251.37 to host several intercessory prayer meetings and other planning meetings, and also spent $4,333.94 in making banners and posters. Promotion of the event through radio stations, newspapers, and TV cost $11,500 and resulted in the second to greatest expense after the amount spent for the needs of the event itself. Out of the individual expenses, organizers spent most on printing the 16-page color event pamphlets, which cost $3,700.



Tapestry LA celebrated its second anniversary on Sunday, November 13, in its new building in downtown Los Angeles. Tapestry will officially move into this new location in the beginning of 2017. (Photo courtesy of Tapestry LA)

Tapestry LA Celebrates Two Years, Looks Forward to 'Reach the City of LA'

BY RACHAEL LEE

Tapestry LA celebrated its two year anniversary on Sunday with an evening of testimonies, prayer, food, musical performances, and a presentation of a new beginning — a new building for the church.

The celebration service, which took place from 4 to 8 PM, was divided into two parts, with a worship service in the first portion, and a dinner event in the second portion. Pastor Keith Park from Church of Southland was featured as the guest speaker during the worship service.

Tapestry LA also celebrated its new location in downtown Los Angeles, and held tours around the new building as well as a presentation of the building to those who attended the service.

"Our hope and desire is to be a part of the renewal process of that area," the church stated on its website.

Being a church that is involved with the city has been one of the aspects that Tapestry LA and its leaders have focused on even at its current location in the Westlake area. The church has regularly had meetings in which the members engaged with and prayed for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called 'Love Westlake.'

This aspect is something the church plans to continue focusing on.

"Our hope is to reach the city of LA with the love of Jesus," said Pastor Charles Choe, the lead pastor of Tapestry LA. "We hope to have a kingdom presence in the area, as we preach the Gospel and work towards justice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area."

The church leaders plan to officially move into the new location in the beginning of 2017.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illegible]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Immigrant Community Urged to Prepare Before President-Elect Trump's Inauguration

BY RACHAEL LEE

In the wake of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s the next U.S. President, activists and advocates urged members of the immigrant community to make preparations ahead of Trump's inauguration.

According to advocates, many in the immigrant community have expressed concern and even panic after Trump had won the election, particularly due to Trump's remarks regarding immigration throughout his campaign. Trump has said he would build a wall between the U.S. and Mexico, deport undocumented individuals with criminal records, increase vetting of those entering the U.S., and limit funding to sanctuary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offer protection from prosecution to undocumented immigrants, among other remarks.

President-elect Trump has also said during his campaign that he would cancel President Obama's executive order which establishe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allows eligible undocumented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S. as children to receive two-year work permits and temporary exemption from deportation. Since DACA was established in 2012, over 1.5 million individuals have submitted requests to receive DACA benefits as of June 2016, according to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If Trump cancels DACA, it is unclear what kind of effect it would have to current DACA recipients, and when exactly during his term he would cancel the executive order.

"At the end of the day, we don't know specifically what he will do," Kamal Essaheb, director of policy and advocacy of the National Immigrant Law Center, said in a press call on Thursday. "He's thrown out a lot of ideas, but it's not clear that they are practically or even politically feasible, or which ones he will prioritize."

There are ways the immigrant community can prepare themselves before Trump becomes inaugurated as president however, advocates said.

First, individuals can prepare by knowing and remembering their rights, Essaheb said, including the right to ask border patrol officers to show ID, and the right to call an attorney. Sally Kinoshita, deputy director of the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ILRC), added that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to ask for a warrant when officers want to come in and search their homes.

"Donald Trump cannot take away the Constitution," said Essaheb. "He cannot take away your rights."

Kinoshita also encouraged individuals to prepare assuming the "worst case scenario" that Trump would take away DACA soon after his inauguration in January. In that case, those who wanted to apply for DACA now should not assume that they will be able to receive it, as requests take several months to approve. Requests for DACA submitted today would not be processed until February or March, and "may result in no benefit and expose [individuals] to DHS," the ILRC stated.

Meanwhile, those who are current recipients of DACA but need to renew have a greater possibility of having renewed permits before Trump is inaugurated, as it takes about 8 weeks for renewal requests to be processed. Those who seek to renew should know that the filing fee increases to $495 on December 23.

Undocumented individuals should also seek legal professionals to see if they are eligible for protections or programs other than DACA, Kinoshita added. There are certain statewide protections for immigrants in several states, such as California's AB 60 which allows undocumented individuals to receive driver's licenses.

"We have seen that as many as 15 percent or more of DACA recipients are eligible for something more permanent than DACA," said Kinoshita.

Donald Trump Says Gay Marriage Decision Is 'Settled,' but Abortion Law Must Go Back to State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aid that the issue of gay marriage was "settled," while the abortion case Roe v. Wade could be overturned.

In a CBS 60 Minutes interview with Lesley Stahl, Trump was asked by the host if he personally supported marriage equality to which he replied, "It's irrelevant because it was already settled. It's law. It was settled in the Supreme Court. I mean it's done."

Social conservatives have not taken Trump's statements on gay marriage lightly.

"We disagree that Obergefell [same-sex marriage] is 'settled law,' and any future Supreme Court should overturn this erroneous decision just as President-elect Trump concedes that a future Supreme Court may overturn Roe," said Joe Grabowski, spokesman for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Trump did not express the same views about abortion, saying that he will appoint Supreme Court justices who are pro-life.

"I'm pro-life," he said. "The judges will be pro-life."

He added that he was in favor of Roe v. Wade being overturned and the decision will go back to the states.

When the host said that that would mean some women will not be able to get an abortion, he replied "Well, they'll perhaps have to go, they'll have to go to another state."

He spoke about a range of issues from Obamacare, his business plans and building a wall to divisiveness in this country.

On Obamacare, Trump said that he was in favor of keeping some of the aspects of the healthcare system such as extension of plan to children living with their parents for an extended period. He said that it will cost, but they will try to keep it and come up with a new system which "will be a great healthcare with much less money."

He was asked about his business plans, and he answered: "I have built a great company. I have some of the great assets in the world, real estate assets. I don't care about it any more. This is so important what I am doing. And you know the people believe this."

When asked if he will build a wall, he said, "Yes." He added that it could have fences in certain areas, but for "certain areas wall is more appropriate."

About the issue of undocumented immigrants, he said: "What we are going to do is get the people who are criminal and have criminal records, gang members, drug dealers, a lot of these people, probably 2 million ... Could be 3 million ... We are getting them out of this country."

Stahl told him about the "fears" which some people have about his perceived treatment of the minorities, and the anti-Trump demonstrations in dozens of cities across America.

He replied, "I would tell them don't be afraid. We are going to bring our country back. But certainly don't be afraid. Here we have had an election, and you have to give some time."

California School District Decides to Restrict Prayer and Bible Citations During Public Meetings

BY CHRISTINE KIM

A school district board in California voted on November 3 to set restrictions on the practice of prayer and citation of Bible verses during public meetings.

Chino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Board of Education made the decision to change its practice of beginning meetings with prayer amidst a legal battle with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 a Wisconsin-based atheist advocacy group.

In November 2014, the district was sued by FFRF, representing anonymous staff, students who said the school board was violating the First amendment with the practices of opening the meetings with prayer and citing Bible verses during meetings.

In February, U.S. District Court Judge Jesus Bernal ruled against the school board, deeming the prayers and bible citations "unconstitutional government endorsements of religion," which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In response, the school board changed its policy on prayer.

"As the elected legislative body of the Chino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the board of education recognizes that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uarantees each person's individual right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or non-religion, and prevents the government and other public officials from establishing a religion or non-religion," the new policy reads.

Irish Christian Bakers Seek to Appeal to UK Supreme Court

An Irish Christian bakery that was fined for refusing to bake a cake with an engraved message supporting gay marriage has decided to appeal its case in the UK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in Strasbourg.

A county court had initially ruled that they had discriminated against their customer in 2014 by declining a request to bake a cake with a picture of Sesame Street's Bert and Ernie along with a message 'Support Gay Marriage' and a logo of gay rights group QueerSpace. They were fined £500 in 2015 by the court.

The owners of Ashers Baking Co. challenged the decision in Northern Ireland's Court of Appeals which upheld the lower court's decision.

Now the bakers want to take the case to UK's highest court, but according to their lawyers they may be barred from doing so. If they are not able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n London, they will try to further their case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in Strasbourg. The matter will reach ECHR only on the condition that it is refused by the Supreme Court of UK.



Ashers Bakery, which was fined for discrimination, plans to appeal its case to the UK Supreme Court, and, if need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hoto: 'Scott'/Flickr/CC)

"Under the complex rules regarding appeals in civil cases, such as the Ashers case, the Court of Appeal decision seems to be final,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Judicature Act 1978," said Simon Calvert, spokesman for the Christian Institute who are supporting Ashers. But he added that because of the broad public implications of the case, their lawyers have urged the Court of Appeals to decide if the appeal could be sent to the Supreme Court.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or 0 Down $169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Black Friday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SONATA
Technology & Ultimate
Package

Lease It For $88 +Tax or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500 Black Friday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new design redefines the compact SUV."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750 Black Friday Cash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3,000 Lease Cash,
$1,000 Black Friday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